

동아시아 '위안부' 서사의 탈민족주의적 재현과 화해 전략 연구

— 『춘자의 남경』과 『벚꽃』을 중심으로

타이페이한*

| 목차 |

1. 들어가며
2. 동아시아 '위안부' 여성의 탈민족주의적 재현
 - 1) 벌거벗은 생명으로써의 '위안부' 여성
 - 2) 동성애적 여성 유대 구축 및 여성의 성적 몸
3. 사랑으로 미봉된 낭만적 화해의 불가능성
4. 나가며

| 초록 |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안부' 서사는 오랫동안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왔으며,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가해자(일본)와 피해자(점령지 국가)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가해'와 '피해'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인 '위안부'는 점차 공적 서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국가 또는 민족의 피해 이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위안부' 경험에만 서사가 집중되었고, 그 외 지역 여성의 유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조선족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김혁의 『춘자의 남경』(2019)과 대만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장영민의 『벚꽃』(2022)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이 '위안부' 역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혁신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민족 중심의 서사 구조를 넘어서 여성 간의 윤리적 유대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화해의 상징으로 제시함으로써 '위

* 부산대학교 taipei@pusan.ac.kr

안부' 문제가 내포한 구조적 폭력과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해결을 감정화, 개인화로 환원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춘자의 남경』과 『벚꽃』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이 '위안부' 역사를 어떻게 서사화하고 대응하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문학적 재현의 윤리적 한계와 서사 전략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군 '위안부', 조선족 문학, 대만 문학, 일본인 '위안부' 여성, 전후 화해

1. 들어가며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조선 하층민 여성들 중 일부는 친부모에 의해 '수양딸'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팔려가, 결국 화류계에 내몰려 기생이나 여급 등의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애국' 선전에 따라 이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애국부인회에 가입하고, 전선에 나가 일본군을 '위안'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나 여공에 지원했으나, 취업 사기를 당해 만주, 중국 관내, 대만, 동남아 등지로 끌려가 결국 '위안부'¹⁾로 전락하였다. 더 나아가 어떤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해 배나 기차에 태워져 타국으로 이송된 후, 각지의 위안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은 조선인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만주,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는 물론, 일본 내지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안부' 서사는 오랫동안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왔으며,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

1) 종군위안부,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왔으나, 각각 문제적 함의를 지닌다. 종군위안부와 정신대는 자발성을 전제하는 뉘앙스를, 위안부는 일본군의 시각을 반영한다. 실제 피해 경험은 강제적 성노예에 가깝지만, 성노예라는 명칭은 2차 가해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관련 다른 논의를 참조해서 따옴표를 붙인 일본군 '위안부'로 하겠다.

래했다. 첫째, 가해자(일본)와 피해자(점령지 국가)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가해’와 ‘피해’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인 ‘위안부’는 점차 공적 서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국가 또는 민족의 피해 이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위안부’ 경험에만 서사가 집중되었고, 그 외 지역 여성의 유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다.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일전쟁 기간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가장 많은 수의 위안소를 설치함에 따라(蘇智良, 2020: 4), 전시기부터 중국 문학에는 ‘위안부’를 다룬 서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황문개(黃文凱)의 지적처럼, 이러한 작품들은 ‘위안부’ 문제를 반전 서사, 영웅주의 서사, 정욕 서사 등 기존의 문학적 틀 속에 배치하며 특정한 재현 양상을 보인다. 우선 반전 서사에서는 ‘위안부’가 전쟁의 부당성과 비인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이로 인해 인물의 도식화와 기호화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영웅 서사에서는 ‘위안부’가 항일 영웅의 기질을 지닌 민족적 상징으로 형상화되며, 국가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 거대 서사에 통합된다. 또한 정욕 서사에서는 ‘위안부’가 남성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서사의 중심이 전쟁 폭력에서 성적 욕망으로 이동함에 따라 ‘위안부’는 성애화되고 낭만화된 방식으로 재현된다(黃文凱, 2021: 170-171). 즉, 이러한 서사에서 ‘위안부’는 구조적 도구로서 기능하는데, 이는 일본군의 잔혹성과 전쟁의 비인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민족의 고통과 저항 정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혹은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다.

대만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일본 남진 정책의 핵심 전초기지로서 대만은 동남아로 진출하는 일본군의 군사 거점이자, 위안소의 인력 공급지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정리한 ‘위안부’ 증언집에도 대만으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게 등장하며, 대만 내에서 조직된 ‘위안부’ 모집 체계(朱德蘭, 2012: 283)²⁾도 상당히 광범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회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운

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만의 대표적 '위안부' 문제 연구자 주덕란(朱德蘭)은 저서 『대만의 위안부』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차대전 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유사한 ‘위안부’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체로 무관심했고, 일부는 ‘그녀들은 원래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던 여성들이며,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朱德蘭, 2012: 1-2) 이처럼 학계의 무관심은 문학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만 문학에서 ‘위안부’를 핵심 주제로 다룬 작품은 극히 한정적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예로는 진천무(陳千武)의 『수송선』(1967), 『엽녀범』(1976)을 들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영평(李永平)의 『망향』(2002), 장영민(張英珉)의 『벚꽃』(2022) 등이 있다. 그 외의 작품에서도 ‘위안부’가 간혹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묘사에 그치거나 주변 인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서사의 중심축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조선족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김혁의 『춘자의 남경』(2019)과 대만 문학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인 장영민의 『벚꽃』(2022)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이 ‘위안부’ 역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혁신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춘자의 남경』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최병우의 논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조선족 문학을 연구해 온 최병우는 그의 논문에서 『춘자의 남경』을 비롯한 김혁의 여러 작품을 분석하였다. 『춘자의 남경』에 대해 그는 하루코와 종혁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회와 화해에 이르는 서사적 과정을 통해 “진실 규명과 진심오린 사과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과거사의 극복의 유일한 방안”(최병우, 2018: 412)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민족 문제로 환원하고, 남녀

2) 1. 군부계통, 2. 대만총독부계통, 그 밑으로는 총독부가 투자한 대척국책회사와 하급 지방정부가 있다.

간의 사랑을 민족 간 화해의 은유로 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자체를 감정적 화해의 틀 속에서 봉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음으로 『벚꽃』에 대한 연구에서 이숙연(李淑娟)은 이 작품을 대만에 서 이전에 발표된 ‘위안부’ 관련 문학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위안부’의 신체적 트라우마, ‘위안부’들 사이의 정신적 연대, 그리고 ‘장렬미학’을 해체함으로써 드러나는 반전(反戰) 사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숙연은 『벚꽃』이 ‘위안부’ 경험을 다층적으로 포착하며 전쟁과 여성 피해의 복합적 양상을 포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李淑娟, 2023). 그러나 동시에, 작품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춘자의 남경』과 『벚꽃』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작가들의 창작 입장에서 볼 때, 두 작가 모두 ‘위안부’ 문제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역사와 연결시켜, 주류 역사 서술에서 종종 소외되어온 지역의 ‘미시사’를 작품의 기점 또는 전환점으로 설정하려는 지역적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김혁은 조선족 문단의 중견 작가로서, 그는 작품에서 언제나 “민족적 사명감을 안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김은자, 2019: 63)하며, 조선족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³⁾. 『춘자의 남경』에서 그는 1920년 일본군이 간도 지역 조선인을 학살한 ‘경신참변’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처럼 주변화된 역사 사건을 소설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한편, 장영민은 대만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으로, 오랫동안

3) 첫 장편소설 『마미꽃, 응달에 피다』(2003-2004)은 조선족 소녀들의 시선을 통해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억을 담아낸다.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2003-2005)는 한 조선족 여성이 도시와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서사화한 작품이다. 최근작인 『춘자의 남경』은 조선인 ‘위안부’가 경험한 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지금까지 김혁은 연변작가협회 김학철문학상,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진달래문학상, 한국문인협회의 해외문학상 등 국내외의 문학상을 30여 회 수상하며 조선족 문단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 대만 역사 속에서 간과되거나 잊혀진 사건들에 주목해 왔다⁴⁾. 그는 『벚꽃』에서 '대만공전'이라는 사건을 소설의 핵심 전환점으로 설정하며 '위안부' 서사의 전개를 위한 지역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안부'를 다룬 다수의 문학 작품들은 특정 국가 출신 '위안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춘자의 남경』과 『벚꽃』은 모두 조선인 '위안부'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일본과 대만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출신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서술한다. 이러한 탈민족적 서사 방식은 '위안부' 집단이 공통적으로 겪은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민족의 여성들 간에 가능한 유대와 공감을 모색함으로써 '위안부' 역사에 대한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시각을 부여한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가능한 해결안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두 작품 모두 '사랑'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역사 문제를 낭만화하고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예컨대 『춘자의 남경』은 할머니가 '위안부'였던 조선족 청년과 그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위안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생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설은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면서 마무리된다. 『벚꽃』에서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특공대원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들의 전시의 애절한 감정과 전후의 재회를 그리고 있다. 소설 말미에는 '위안부' 여성이 일본 병사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와 영혼결혼식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4) 첫 장편소설 『Rio Douro』(『황금의 강』)는 화렌 리우우시(立霧溪) 유역의 금 채굴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아상(阿翔)』은 대만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진 '조산사'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조산사 아상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다. 『오랑우탄 히데오(猩猩輝夫)』는 대만 원주민 대적일본병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그는 금종상, 금정상, 구가 연간소설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시보문학상, 타이페이문학상, 임영산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장편소설 작품은 종자정문학상, 대만역사소설상, 성문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민족 중심의 서사 구조를 넘어서 여성 간의 윤리적 유대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화해의 상징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안부’ 문제가 내포한 구조적 폭력과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해결을 감정화, 개인화로 환원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춘자의 남경』과 『벚꽃』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이 ‘위안부’ 역사를 어떻게 서사화하고 대응하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문학적 재현의 윤리적 한계와 서사 전략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위안부’ 여성의 탈민족주의적 재현

『춘자의 남경』은 작가 김혁이 2015년부터 1년간 『연변문학』에 연재한 소설로, 2018년에는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이 출간되었고, 2019년에는 중국어판, 2022년에는 영어판이 각각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1920년 ‘경신참변’⁵⁾부터 1937년 ‘남경대학살’에 이르는 동안, 주인공 춘자가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가 겪는 비참한 삶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사 구조상, 손자 종혁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매개적 인물로 설정된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청년으로, 일본인 여성 하루코(漢字로는 ‘春子’, 춘자와 동명)를 사랑하게 된다. 봄방학 동안 하루코와 함께 연길로 귀향하여 가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할머니가 과거에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반면 후반부에서 하루코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과거 중국 침략에 가담한 일본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가족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복잡한 역사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1920년 10월부터 1921년 5월까지 일본군이 간도 지역에서 약 2만 명이 거주하는 조선인 마을과 독립군 거점을 파괴하고,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킨다. (조원기, 2012)

작품의 결말에는 두 인물이 이러한 무거운 역사를 극복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암시한다.

『벚꽃』은 2018년 대만 국가문화예술기금회⁶⁾ 장편소설 창작 발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창작 보조금을 받았으며, 2022년에 정식 출판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를 주인공으로 하여, 취업사기를 당한 후 대만에 설치된 위안소 '학송옥(鶴松屋)'으로 강제 이송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위안소에서 노영주는 반정부 가문 출신의 일본인 비행사 사사키를 만나 점차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두 사람은 같이 탈출을 도모하지만 오해로 인해 계획은 끝내 무산된다. 이후 사사키는 전쟁에서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동료를 보호하다 실종되며 생사는 확인되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도 서사를 연결하는 매개적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위안소에서 잡무를 하는 대만인 하야시(小林)이다. 그는 전시에는 노영주와 사사키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전후에는 TV를 통해 노영주가 '위안부'로서 증언하는 보도를 접한 뒤 먼저 연락을 취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대만에서 재회하게 된다. 이후 그는 사사키의 유품을 노영주에게 전달하고,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춘자의 남경』과 『벚꽃』의 주인공은 모두 조선인 '위안부'이지만, 두 작품은 다양한 국가와 민족 출신 '위안부'의 경험 또한 폭넓게 조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본인 '위안부'의 재현과 관련해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피해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공적 서사 안에서도 이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주변화 되어왔으며, 대부분 모호하거나 평면적인 방식으로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우익 세력이 오랫동안 '위안부'를

6) 재단법인 국가문화예술기금회(國藝會)는 1996년 1월에 설립된 예술, 문화 분야의 재단법인으로, 중화민국 정부의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국예회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 활동에 유리한 전시,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장려하며, 예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예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cafroc.org.tw/about.html>를 참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일본 근대의 공창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전 차금을 받고 유곽에 들어가는 사창제를 금지하고, 그 대신 국가가 관리하는 매춘 제도로 전환하여 ‘자유의지’, ‘자유로운 창업과 폐업’, ‘15세 미만 소녀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공창제를 확립하였다(오성숙, 2018: 232-233).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점차 변질되어, 매춘 여성의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억압적 제도로 전락하였다. 또한, 일본의 법률상 여성의 해외 도항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과 중국 등지에는 예외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이나 중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 매춘 여성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들은 흔히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이라 불렸다.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공창제는 조선, 대만, 만주 등 식민지로도 이식되어 확산되었다.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은 ‘위안부’를 기존 공창제 하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유 의지’를 지닌 종업자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식민 맥락, 그리고 국가 폭력은 은폐되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은 이미 ‘위안부’ 문제를 민족문제로 전환시켜, 이를 민족 정체성 구축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위안부’ 역사를 민족주의와 결합시켜 그녀들을 민족의 희생자로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방식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그녀들이 본국 사회 내에서 겪은 내부적 폭력을 희석시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 민족주의’ 서사는 ‘위안부’라는 역사적 타자를 민족사의 중심으로 재포섭하고 이에 가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한다. 일본인 ‘위안부’가 오랜 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들이 민족 공동체 내부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인식과 지지의 부재 속에서, 이들의 발화와 기억은 필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국가로서, 일본 사회에서 성과 성

폭력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동정보다는 의심과 비난의 시선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토 시오리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는 2017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자신이 겪은 강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거센 공격과 비난을 받았고, 언론의 적대감은 막대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치심과 침묵으로 지배적인 담론을 구성하는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일본인 '위안부'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뿌리 깊은 성별 편견과 사회적 처벌 메커니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일본인 '위안부'가 지닌 이중적 정체성이다.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여성은 '군국의 어머니', '군국의 아내'로서 전쟁 동원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일정한 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그녀들이 식민과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웠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胡澎, 2005). 일본 군부와 경찰, 애국부인회 등의 조직적 동원에 따라 수많은 일본인 기생, 예기, 여급, 그리고 일부 일반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취업 사기 등의 방식으로 위안소에 유입되었다(千田夏光, 1996). 또한, 종군 간호사와 같은 경우에도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성폭력사태가 많이 발견된다. 더불어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점령군을 위한 '특수위안시설협회(RAA)'를 설치하고 일본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上野千鶴子, 1999: 8).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신분은 일본인 '위안부'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그녀들은 '피해자'로서의 공감과 유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명확한 책임 범주에서도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역사 서술에서 이중적 소외를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춘자의 남경』에 등장하는 일본인 ‘위안부’ 시오노와, 『벚꽃』에 등장하는 사나에, 고자와 등의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입체적 재현은 중요한 텍스트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 별거벗은 생명으로써의 ‘위안부’ 여성

우선 『춘자의 남경』에서 시오노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재현된다. 한편으로 그녀는 취업 사기의 방식으로 춘자를 위안소로 유인한 가해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 총동원 체제 하에서 ‘여자애국봉사대’에 동원되어 만주로 파견되었다가 결국 ‘위안부’가 된 피해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시오노는 군국주의의 공모자이자 동시에 그 피해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 소설에서 이러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의 정체성 전환은 그녀의 외모 변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소설에서 춘자가 시오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외모 묘사를 살펴보자. 춘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이모의 집을 찾아가지만, 문 앞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중 시오노와 처음으로 마주한다. 외태머리를 한 춘자는 파마머리를 한 시오노를 보며, 자신이 촌스럽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그녀에게 부러움과 동경을 품게 된다. 시골에서 자란 춘자의 눈에 시오노의 외모와 복장은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부각된다.

그날도 이모의 려인숙 앞 길목에서 춘자는 발끝으로 땅을 호비작거리고 섰다. 오늘날만은 얼굴에 두툼한 철판을 깔고 이모에게 한번 줄라볼 생각이었다.....그렇게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춘자를 누군가 불렀다. “아이고 이빠라.” 한껏 머리를 부린 녀인 하나가 뽀족 구도 소리를 자지러지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다가왔다. 다가오며 멀리서부터 말을 걸었다. 솟아오른 광대뼈에 하관이 뽀, 얼굴은 회가루라도 뒤집어쓴 것처럼 분화장을 한 40대의 녀인이었다. 눈실난실 걸어오는 녀인은 투피스 차림에 손에 핸드백을 들고 서있다. 무엇보다 강굴강굴 웨이브진 파마머리가 춘자의 시선을 앗아갔다. 춘자는 자신의 외태머리를 부끄럽게 매

만졌다. 녀인이 징 박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흘리며 춘자를 향해 한발 더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춘자는 현실감을 다잡기 위해 멧쟁이 녀인을 정면으로 햇빛을 쳐다보듯 눈부시게 바라보았다. 녀인이 핸드백에서 종이 쪼박을 끄집어내어 춘자 앞에 내밀었다..... 최면이라도 된 듯 또박또박 읽었다. 끝없이 말의 보따리를 터치면서도 그녀의 눈길은 한시도 춘자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일신을 훑는 녀인의 그 적나라한 눈길에 외려 춘자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녀인이 말하면서 춘자의 기색을 살폈다. 움쭉한 눈확 속의 동공이 춘자를 움켜쥐기라도 할 듯 팽팽하다. (金華, 2018: 139-141)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춘자의 이모가 운영하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처음 만난다. 이 여인숙은 “회막동(도문)에서 조선의 온성으로 가는 길목”(金華, 2018: 139-141)에 위치해 있는데, 도문은 간도와 조선을 연결하는 국경 도시로서, 일본의 만주 이민 정책 하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던 접경지대였다. 특히 1932년 만주국이 신경과 도문을 연결하는 경도선 철도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문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북조선 3항(청진, 웅기, 나진)의 배후 도시, ‘중계 국경역’으로 발전하였다”(최낙민, 2017: 195). 다시 말해, 두 사람이 마주한 도문의 거리는, 철도 건설과 인구 이동에 의해 형성된 근대적 도시 공간이었던 것이다.

근대 도시 공간 상상 속에서, ‘거리’는 전형적인 공공 공간으로서 종종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모더니즘의 태동에 대한 열정적인 묘사에서 주로 찬양하는 도시의 공적 영역은 바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다. 대로와 카페, 거기에는 술집과 사창가는 전부 남성을 위한 곳이었다.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은 그러한 남성들의 소비의 대상이었다”(Massey, 2016: 420). 즉, 근대 도시의 젠더화된 구조 속에서 남성은 행위의 주체이자 자유로운 배회의 권리를 부여받는 존재인 반면, 여성은 타자로서 규율되고, 응시와 소비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진다.

시오노와 춘자가 처음 마주하는 장면에서, 만주의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주체로서 시오노는 분명한 능동성과 주체성을 드러낸다. 그

녀는 거리 위를 걸어다니면서 춘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먼저 말을 건넨다. 회사 업무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눈길은 한시도 춘자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고”, “음쑹한 눈화 속의 동공이 춘자를 움켜쥐기라도 할 듯 팽팽하다.” 이 장면에서 시오노는 근대 도시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부여되었던 응시자의 위치를 차지하며,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반면 춘자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타자로, 객체로 전락한다.

이러한 응시와 피응시의 관계 속에서, 시오노의 세련된 외모와 옷차림은 한편으로는 춘자를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며, 그녀의 가해자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위장과 가상이기도 하다. 시오노의 화려한 복장 아래에는 춘자와 다름없는 별거벗은 몸이 숨겨져 있다. 시오노가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소로 데려온 후, 처음에는 그녀가 관리자로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위안부’ 인원수가 부족해지자 시오노 역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수십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된 그녀는 병세가 악화되자 군인들로부터 버림받기에 이른다.

1) 수은을 찌고 시오노는 별거벗은 몸 위에 군용담요 한 장을 걸치고 누워있었다. 담요 밖으로 드러난 시오노의 몸은 잘게 쪼갠 장작개비처럼 말라있었다. 성병이 육신을 파고들어 온몸 군데군데가 종가자국이었고 입술도 풀썩이 배인 듯 파랗게 질려있었다. (金華, 2018: 200)

2) 오늘 시오노는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자신을 깡그리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어찌 보면 역시 란마에 든 그의 운명이 저 상처투성이 몸뚱아리 같이 처연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金華, 2018: 205)

인용문에서 시오노는 침대 위에 던져진 채 헝클어진 머리와 지워진 화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과거에는 근대적 외양을 지닌 채 식민 질서 속에서 하위자를 관리하던 매개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제도에 의해 버려진 신체일 뿐이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 몸뚱아리’로 환원되며, 더

이상 어떤 권력의 대리인도 아닌, 춘자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폭력에 노출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춘자는 위안소라는 극단적 공간 안에서 시오노 역시 자신과, 그리고 다른 '위안부'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벌거벗은 생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감벤(Giorgio Agamben)은 그의 저작에서 '예외상태'라는 개념을 “법률의 적용은 정지되지만, 법률 자체는 효력을 갖는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Agamben, 2009: 65).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법적 규범의 보호 밖으로 배제되면서도, 동시에 주권 권력의 질서 안에 포섭된 존재가 된다. 위안소는 바로 이러한 '예외상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곳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무질서의 공간도 아니며, 법적 보호를 받는 합법적 공간도 아니다. 그 대신, 법률과 권력의 경계가 흐려진 채, 주권이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특수한 영역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벌거벗은 생명'이란, 예외 상태 속에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살아 있음'만이 허용된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위안소에서는 강제로 '위안부'가 된 춘자뿐만 아니라, 걸으로는 매개자나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오노 역시 주권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지배되고, 이용되며, 폐기될 수 있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한다. 시오노는 단정한 복장과 현대적인 화장을 통해 걸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 위치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녀의 '주체성'은 애초부터 불안정하고, 일종의 위장이나 가상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성병에 감염되어 버려지고, 들것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화장과 복장이 모두 벗겨진다.

『춘자의 남경』에서 작가는 일본인 '위안부' 시오노의 외양이 화려함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군국주의 권력 체계의 '매개자'로서 그녀가 수행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드러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로서 그녀가 겪은 고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선인 '위안부' 춘자와 일본인 '위안부' 시오노 사이에는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여성 유대가 형성된다. 그녀들은 제국 내에서 서로 다

른 위계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위안소라는 '예외공간'에 포섭되어 주권 폭력의 통제 하에 놓인 '벌거벗은 생명'이 된 것이다.

2) 동성애적 여성 유대 구축 및 여성의 성적 몸

『춘자의 남경』과 마찬가지로, 『벚꽃』 역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의 두 측면에서 일본인 '위안부' 사나에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벚꽃』에서 일본인 '위안부' 하세가와와 대만인 '위안부' 후지 사이의 동성애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세가와는 홋카이도 출신으로, 오빠가 입대한 뒤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자 부모는 딸로 하여금 정부의 소집에 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모집'은 사실상 '위안부' 모집이었으며, 하세가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만으로 오게 된다. 대만인 '위안부' 후지는 원래 고산족 출신이었지만 다섯 살 때 일본 경찰에게 입양되었다. 전황이 악화되자 양부모는 도쿄로 귀환하고, 후지만 대만에 남게 되는데,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와 마찬가지로, 후지 역시 취업 사기에 속아 '위안부'가 된다. 소설은 하세가와와 후지 사이의 여성 동성애적 관계를 정신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함으로써, '위안부' 제도 하에서 여성들 사이의 복잡하고 심층적인 감정적 유대를 보여준다.

『벚꽃』에서 일본군인 오카모토는 학송옥의 관리자로서, 극히 특수한 처벌 방식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위안부' 중 한 명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모든 '위안부'를 소집하여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이른바 '면타(面打)'라는 방식이다. 하세가와와 후지는 때면 이 '면타' 시간에 서로를 짝으로 선택하곤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영주는 이 두 사람이 항상 함께 붙어 다니며 좀처럼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점을 점차 눈치채게 된다. 더 기묘한 일은, 어느 날 저녁 오카모토가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위안부'들에게 모두 벗은 채 면타를 하라

고 명령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볼 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주저 없이 후지 앞에 다가가 뺨을 때리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다가오는 고통에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숨길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모습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영주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張英珉, 2022: 97). (필자 번역, 이하 생략).

‘면타’는 두 가지 뚜렷한 규율 기능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위안부’들에게 수치스런 폭력을 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신이 종속적이고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굴욕 속에서 도망이나 저항의 의지를 점차 상실하게 한다. 둘째, ‘위안부’들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조성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과 유대의식을 해체하고, 상호 고발과 감시를 유도함으로써 통제를 내면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하세가와와 후지에게는 이러한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극심한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은 “다가오는 고통에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숨길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 사이의 감정적 유대는 오명과 고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탱하게 했으며, 위안소라는 억압적 공간 속에서도 내적 주체성을 일정 부분 보존할 수 있게 했다.

하세가와와 후지는 정신적 유대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차원에서도 동성애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하세가와가 후지 후지코와 입을 맞춘 뒤, 손끝으로 서로의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지고 다시 한 번 입을 맞춘다. 두 사람의 얼굴이 맞닿으며 부드럽게 스친다. 똑같이 피부가 닿는 것이지만, 그 촉감은 전혀 달랐다. 군인의 피부는 대부분 거칠고, 햇볕과 비에 노출되어 젊은 병사들조차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며, 입술도 늘 갈라져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여성을 억지로 입맞춤할 때면, 그 거친 입술이 여성의 입술을 찢을 듯 아프게 만들곤 했고, 여성들은 이를 견디며 감내해야 했다. (張英珉, 2022: 98).

인용문은 하세가와와 후지 사이의 성적 접촉과 군인과의 성적 접촉을 대비시키며,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자율적인 관계라면, 후자는 국가가 주도한 성 지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강제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이다.

일본의 전시 이데올로기 속에서 '현모양처'의 규범, 즉 이성애를 전제로 한 성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다.⁷⁾ 이러한 젠더 질서에서 여성의 핵심적 기능은 국가에 복무하는 데에 있었으며, 제국 군인을 출산함으로써 국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성욕을 충족시켜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여성의 신체는 이중적으로 규제된다. 즉, 여성은 '군국의 어머니'이자 '군국의 아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여성의 신체를 전시 자원의 일부로 인식하고, 출산과 성욕을 통치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신체적 실천을 억압한다.

따라서 하세가와와 후지 사이의 여성 동성애적 신체 실천은 비록 처음에는 현실을 도피하고 생존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전시 일본의 이성애 중심적 젠더 질서를 교란하고 흔들었다. 이들 사이의 육체적 실천은 '출산 도구'나 '성적 자원'이라는 국가의 논리에 편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나고 이를 거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서 논의한 감정적 실천과 마찬가지로, 하세가와와 후지의 육체적 실천 역시 전시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소설에서 하세가와는 성병에 감염된 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보내지면서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일본으로 귀환한다. 귀국 후 그녀는 처음에는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했지만, 과거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자 곧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 한 공장에서 오래 일할 수 없는

7) 肥留間由紀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性同性愛の〈発見〉」, 『解放社會學研究』 17, 2003. 25-28쪽. 하혜주, 「소설과 영화에 재현된 전시기 일본 여성의 욕망 연구」, 『아시아 영화연구』 18, 2025, 108-109쪽에서 재인용.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존을 위해 그녀는 결국 미군을 위해 설립된 '특수위안시설협회(RAA)'에 들어가 다시 미군 '위안부'가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거리에서 한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전후에 이르러 이전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하세가와를 가엾게 여겼지만, 과거 '위안부'와의 기억을 얘기하면서 그녀를 기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진짜 더럽지 않아?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전염될 수 있단 말이야.” 전시의 경험이 소문으로 퍼지지만 하면, 남자들은 그녀를 희롱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느 상사는 근무 중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일도 있었다. “어차피 예전에 '위안부'였잖아. 이런 거 익숙하겠지?” 상사는 이렇게 말했고, 하세가와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일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張英珉, 2022: 364-365).

인용한 부분은 하세가와의 '위안부' 경험이 공장 동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녀가 성희롱과 기묘한 시선을 겪게 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묘사는 하세가와의 신분이 '위안부'에서 '노동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이 여전히 '위안부'의 몸으로 간주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은 “몸이 사회적 실천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표면”이며 “특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존재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McDowell, 2010: 96)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신체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기능성과 의미를 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보자면, '위안부'였을 때 하세가와가 몸은 '성적 몸'으로 기능했으며, 공장에서 일할 때 그녀의 몸은 '노동의 몸'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료들은 '노동의 몸'으로서의 하세가와가 아니라, 과거 '성적 몸'으로서의 하세가와에 머물러 있다. 맥도웰은 또한 권력 지배와 여성의 몸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피지배 집단은 오직 몸을 통해 정의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몸속에 가두어진 것으로 정의되는 반면, 기본적으로 백인과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 집단은 눈

에 띄지 않는 중립적, 보편적, 비체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몸의 구분은 특정 집단을 열등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잡혀 있으며 부적당한 몸동작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자’로 정의된다(McDowell, 2010: 9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몸은 일반적으로 중성적이고 보편적인, 비체현적인 몸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의 몸, 특히 군사적 젠더 체계에 편입된 여성의 몸은 종종 성의 범주에 고착된다. 하세가와의 몸은 이러한 ‘성적 몸’의 틀 안에 갇혀 지배받는 존재, 즉 타자로 위치 지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착과 지배는 그녀의 죽음까지 지속된다.

하세가와는 골목 안에 쓰러진 채, 목이 졸려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된다. 새벽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아무도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비가 그친 뒤에 야 한 마리 개가 피냄새를 맡고 골목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길을 지나던 아이가 그 소리에 이끌려 다가갔을 때, 하세가와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거리 한구석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가슴이 반쯤 드러난 상태였으며, 가슴 위에는 칼로 찌른 뚜렷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張英珉, 2022: 366).

하세가와는 미군을 상대하러 가는 도중 한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한다. 그녀가 살해당한 장면은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가슴이 반쯤 드러난 상태”로 거리 위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 위에는 칼로 찌른 뚜렷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묘사는 하세가와가 결국 ‘한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적 몸’으로서 죽은 것임을 드러낸다. 이는 곧 전후 일본 사회가 여성의 몸에 지속적으로 가해온 젠더 폭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후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⁸⁾ 등지에서는 미군

8) 대만 본토에는 대규모 미군 주둔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대만은 미군의 해외 휴양지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을 방문하는 미군수가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술집과 빠걸(bar girl)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학 작품으로는 黃春明의 『小寡婦』(1975), 王禎和의 『玫瑰玫瑰我愛你』(1984) 등이 있다.

을 위한 공영 위안시설이 설치되었고, 그에 따라 '양공주', '팡팡걸', '빠걸'과 같은 존재들이 생겨났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여성들의 몸은 제국주의, 국가주의, 남성중심주의의 다층적 억압 속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초국가적, 초지역적인 피억압 경험은 전후 동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사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3. 사랑으로 미봉된 낭만적 화해의 불가능성

『춘자의 남경』과 『벚꽃』이라는 두 작품의 제목에는 모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춘자의 남경』에서 '춘자'는 조선인 '위안부' '춘자'를 가리키는 동시에, 일본 여성 '하루코'이기도 하다. "춘자의 남경"은 과거 간도에서 남경까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의 역사적 고통을 의미하는 한편, 현재 연결에서 남경으로 향한 일본 여성 하루코의 여정을 상징하며, '위안부' 역사를 마주한 그녀의 자기 성찰과 내면의 변화를 드러낸다. 『벚꽃』에서 '벚꽃'은 위안소에서 노영주의 일본식 이름 '사쿠라코(櫻子)'를 의미할 뿐 아니라, 벚꽃처럼 짧게 피어 사라진 일본 특공대 비행사 사사키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목의 이중성은 두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여준다. 『춘자의 남경』은 '위안부'의 역사 재현과 일본 민중의 반성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벚꽃』은 비판의 초점을 전쟁 그 자체에 맞춘다. 즉, 강제로 위안소에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 여성이나 강제로 징용된 일본인 비행사 남성 모두가 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서사 전략에서 두 작품 모두 '사랑'이라는 서사 장치를 공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넘는 유대의 매개로서든, 반성과 화해의 상징적 경로로서든 '사랑'은 이 두 소설에서 '위안부' 기억 구축과 역사적 책임 요구의 핵심적 서사 도구가 된다.

우선 『춘자의 남경』에서, 연길로 돌아온 종혁과 하루코는 ‘위안부 문제 대책 협의회’(이하 ‘대책회’)가 춘자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것을 통해 그녀가 과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하루코는 종혁 및 대책회 일행과 함께, 춘자가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했던 곳을 방문한다. 남경에서 취재하던 중, 그들은 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연길로 돌아간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하루코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채 춘자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일본어로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한다.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사과’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어긋남을 드러낸다. 작품에서 종혁과 하루코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주요 갈등은 조부모 세대의 역사적 대립에서 비롯된다. 하루코의 할아버지는 과거 남경대학살에 직접 가담했던 일본군이었고, 종혁의 할머니는 남경대학살을 직접 겪은 ‘위안부’ 생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일본어로 사과를 전하는 사람은 전쟁에 실제로 가담했던 하루코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루코 자신이다. 오히려 소설의 말미에서도 하루코의 할아버지는 전쟁을 미화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코의 사과는 춘자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대상의 부재로 인해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발화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소설 속에서 춘자는 ‘정형화된 ‘위안부’ 서사’만을 말하는 도구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으며, 타인의 사과를 거부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루코의 할아버지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미화하는 장면은 춘자의 죽음과 교차하며, ‘사과’라는 윤리적 행위를 근본적인 전도 상태에 빠뜨린다. 결국 이 사과는 전달될 수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말로 남게 된다.

그리고 『춘자의 남경』에서 하루코는 반복적으로 사과와 죄책감을 표현

했지만, 이는 역사적 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전환되지 못했다. 그녀는 춘자와 다른 '위안부' 생존자들의 역사를 알게 된 후 강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결국 남경대학살기념관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발걸음을 멈췄다. 다시 말해, 하루코의 죄책감은 역사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회피로 귀결된다. 나아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하루코는 종혁에게 이별을 고한다.

사실 중국에 사는 조선족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남경대학살, 위안부와 같은 문제들을 본의 아니게라도 꼭 떠올려 생각해보야 했어요. 위안부문제에서 일본이 왜 책임을 면할 수 없는지,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전 후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으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찾아봤어요. 종혁씨 몰래 말이에요. 사실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매일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전에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종혁씨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리고 이번 걸음에 나는 이 질문에서 더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의 일일임을 깨닫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군 위안부의 자손이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 여자와 사랑한다는 게...그게 가능할까요? (金革, 2018: 255-256)

하루코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닌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한 후, 자신이 이 역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면의 죄책감에 의해 종혁에게 이별을 고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개인적 감정으로 대체하는 논리를 드러낸다. 아감벤은 전후 독일 개신교회가 “우리 국민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 자비한 하느님 앞에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힌 공개 선언에 대해 비판하며, “이 책임에 있어 불가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비의 하느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느님이다”(Agamben, 2012: 143)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독일 교회는 반유대주의 범죄를 정당화한 목사들을 처벌해야 했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을 민족 전체의 죄로 확대시켜 구체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물음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와 마

찬가지로, 하루코의 반성 역시 사적 차원의 도덕적 감정에 머무를 뿐, 공적 차원의 실천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로써 사과와 행동 사이의 단절이 드러난다. 사과는 반복적으로 말해지지만, 정의 실천은 여전히 부재한 것이다. 스즈키 유코(鈴木裕子)는 주권자인 일본 시민이 ‘위안부’ 문제에서 해야 할 일은 “일본정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회복, 정의회복을 위해 한시라도 빠른 조치와 시책을 펼치도록 하는 것”(鈴木裕子, 2010: 206)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죄책감이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설은 성급하게 종혁과 하루코의 ‘재회’라는 결말을 배치한다. 이는 두 인물의 사랑이 다시 이어졌음을 암시하며, 상징적인 ‘화해’의 서사를 구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화해가 필요한 당사자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화해가 유효한 것인가?

『춘자의 남경』에 비해 『벚꽃』에서는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와 일본인 비행사 사사키 두 주인공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설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을 공통적으로 전쟁의 피해자로 묘사한다. 여기서 작가가 소설 속에서 두 인물에 대한 등식을 구성하려는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 사사키가 처음 위안소에 들어갈 때, 노영주의 방으로 안내받고, 그녀가 몰래 숨겨둔 가위를 발견한다. 그의 추궁 끝에, 노영주는 자신의 출신 배경과 위안소에 끌려오게 된 과정을 털어놓게 된다.

노영주는 떨리는 입을술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침내 긴장된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 저는 부산에서 ‘간호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대만으로 보내질 줄은 몰랐어요…… 장교님, 저는 속아서 온 거예요……”

“속아서?” 사사키는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노영주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럼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

“나를 무서워하지 마…… 전쟁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불타지도 않았을 거고, 가족들도 죽지 않았을 거야…… 나도 군인이 된 건 너랑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었어…… 군인이 되어야만 살 수 있었거든.”

눈앞의 남자가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에 노영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역시 슬픈 사연을 지닌 채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것일까? 더 놀라운 것은, 사사키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는 점이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을 지나 다다미 위로 툭툭 떨어졌다. (張英珉, 2022: 111-112).

작가는 여기서 노영주와 사사키를 전쟁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고 수동적으로 동원된 하층민으로 설정하며, 두 인물 사이에 일종의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소설 속에서 사사키의 아버지는 평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학과 교수로, 공개적으로 중일 전쟁에 반대했다가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힌 인물이다. 그는 결국 극단적 군국주의자에 의해 살해당하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며, 사사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이러한 경험은 사사키로 하여금 군국주의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게 만들었다. 그러나 징병령이 다가오자, 사사키는 더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전장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 육군이나 해군에 편입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고 생존 확률도 높은 비행사가 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 이에 그는 대학 입학은 포기하고 비행학교에 지원하여 비행사가 된다.

이처럼 사사키는 비록 반정부 가문에서 자라났고 가족 모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 비행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노영주는 조선 농촌 출신으로, 약 6년 정도의 공학교⁹⁾ 교육(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을 받은 것이 전부였으며, 기본적

9) ‘공학교(公學校)’는 일제시대 대만의 초등 교육 기관으로,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

인 일본어만을 구사할 수 있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교육 제도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황민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교육 내용은 ‘국어(일본어)’와 농공업 기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곽진오, 2011: 260-262). 이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는 값싼 노동력을 생산하려는 데에 있었다.

다음으로 사사키는 비록 강제로 징병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행학교에 지원하여 비행사가 됨으로써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는 위안소 출입 자격과 비행사로서의 급여도 포함된다. 반면, 노영주는 사기를 당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으며,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위안소에 들어간 후에는 장기간 동안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었다. 또한 군인이 위안소에 출입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위안부’들이 받은 보수는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종이표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비록 작가는 사사키와 노영주를 모두 전쟁에 휘말린 하층민으로 형상화하려 했지만, 두 인물이 처한 환경은 실질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두 사람의 사랑도 소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사회 하층에 속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하층민이라는 위치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의 사랑 관계 역시 대등하지 않다. 소설은 사사키가 노영주에게 품은 감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당한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이 4 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도 달라졌다. 소설에서 “노영주는 올해 17 살…… 지금은 1943년(23쪽)”라는 서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1926년생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2차 조선교육령(1919-1938) 시행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조선 초등 교육 기관 명칭은 ‘보통학교(普通學校)’였으며, 학제는 6년이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공학교’라는 명칭은 작가가 일제시기 조선의 교육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이며, 식민지 대만의 교육 기관 명칭인 ‘공학교(公學校)’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키에게 있어서 그는 점점 노영주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어쩌면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노영주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안전하게 털어 놓을 수 있었고, 어쩌면 오직 이처럼 협소한 공간 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충성하고 유능한 제국 군인이라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그저 원래의 자신, 대학을 거의 마칠 나이인 스물두세 살의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다. 입대 후 줄곧 군인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왔던 사사키는 오직 노영주 앞에서만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말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한편으로 노영주가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위안소란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일 뿐이며, 군인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들이고, 설령 위안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張英珉, 2022: 149).

소설의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키가 노영주에게 감정을 품게 된 이유는 그녀 앞에서만큼 “충성하고 유능한 제국 군인”이라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안부’가 군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사키에게 노영주는 마음 놓고 감정을 토로하고 내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다른 군인들이 ‘위안부’를 통해 육체적 욕망을 해소했다면, 사사키는 노영주를 통해 정신적 욕망을 해소한 것이다.

동시에 사사키는 군인과 ‘위안부’ 사이에 뚜렷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위안부’의 말은 군인의 눈에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녀들의 임무는 군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기에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스톱홀름 증후군적 색채가 짙은 ‘사랑’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구조는 처음부터 불균형적이었다. 이 관계에서 노영주의 감정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전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로 강요된다.

소설에서 사사키는 전세가 악화될 것을 예측했고, 자신의 유품을 미리

하야시에게 맡기며 이를 노영주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전시의 혼란 속에서 하야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하야시는 TV에서 노영주가 ‘위안부’ 생존자로서 공개 증언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대만에서 재회하고, 하야시는 마침내 사사키의 유품을 전달한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노영주는 사사키와의 상징적인 ‘영혼 결혼식’을 완성한다. 이처럼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 군인의 사랑은 이 소설의 핵심 서사 중 하나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항상 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오카 마리(岡眞理)는 타자 기억에 관한 분석에서 일본군과 ‘위안부’ 사이의 사랑 경험을 다룬 두 텍스트를 비교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의 『기대와 회상』으로, 한 일본군 병사가 자신이 ‘위안부’와 함께 보낸 짧은 한 시간을 ‘사랑’이라 부르며, 이를 따뜻하게 회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두 번째는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집이다. 이 증언집에서 한 생존자는 과거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일본군 병사를 여러 번 언급하며 그와의 기억을 자세히 설명한 뒤, 갑자기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곳은 위안소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었어.”라고 했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기억의 재현 과정에서 일본군과 ‘위안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의 기억 속에서 ‘사랑’은 전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미화하거나 위안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위안부’의 기억 속에서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역설이자, 치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며, 끊임없이 부정해야만 하는 위험한 감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그 순간이 그녀에게 부정하기 힘든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녀는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岡眞理, 2024: 107).

따라서 『벚꽃』에서 일본 군인과 ‘위안부’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국적을 초월한 ‘사랑’으로 그려낸다고 해도, 이러한 감정은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즉,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도 과연

사랑이 가능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감정이 발생한 공간 자체가 강제성과 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난 '사랑'은 결국 부정되어야 할 기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이 글은 김혁의 『춘자의 남경』과 장영민의 『벚꽃』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두 작품이 각각 조선족 문학과 대만 문학에서 '위안부'를 주제로 한 최초의 장편소설로서, '위안부' 역사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획기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2장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위안부' 여성의 초민족적 맥락 속에서의 복합적 경험을 드러낸다. 《춘자의 남경》은 조선인 여성의 고통뿐만 아니라 일본인 여성의 처지까지 입체적으로 묘사하며,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 그녀들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다층적 신분을 보여준다. 한편, 《벚꽃》은 여성 간 동성애적 실천을 서사화함으로써, 위안소라는 '예외상태' 공간 속에서 여성들이 극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체성과 상호 연대를 유지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3장은 두 작품에서 다루어진 전후 '위안부' 문제의 화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두 작품 모두 '사랑'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으나, 권력 관계의 불평등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사랑은 오히려 화해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춘자의 남경』에서 일본인 여성 하루코의 사과는 주체와 대상 간의 전도를 보여주며, 개인적 감정을 역사적 책임 위에 위치시킨다. 『벚꽃』에서 작가는 조선인 '위안부' 노영주와 일본인 군인 사사키를 전쟁의 피해자로 묘사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강제성을 내포하며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로 인해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인 사이의 소위 '사랑'은 역사적 기억 속에서 부정되어야 하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김혁이 『춘자의 남경』을 창작하기 전인 2012년 중일 간의 다오위다오/센카쿠를 둘러싼 영토권 분쟁이 고조됨과 함께 중국 내 ‘위안부’ 관련 보도 역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중국 언론은 ‘위안부’ 문제를 다오위다오 사건과 관련하여, “그 이면에는 일관된 일본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야심이 관통하고 있다”(宋少鵬, 2016: 144)고 보도하였다. 2014년에는 중국 정부가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9월3일)’과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12월13일)’을 설립하고, 같은 해 3월에는 ‘남경대학살’과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위안부’ 관련 보도가 정점에 달했다(류탕기나, 2021: 70). 2014년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부정, 2015년 교과서 내 ‘위안부’ 서술 수정 및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등 일련의 사건은 한일 간의 감정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다시 말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이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한일, 중일 간의 적대감정이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위안부’는 민족 희생의 구현으로서 이 시기 언론 보도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대만에서는 2018년 일본 극우 인사가 타이난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을 발로 걷어찬 사건이 일어났다. 『자유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위안부’ 관련 보도 건수는 총 198건으로, 2019년 75건, 2017년 139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수를 기록하였다.¹⁰⁾ 또한 2018년 중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는 대만과 일본 간 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언론은 이러한 관계 변화를 “관계 둔화”(中國社科院台灣研究所, 2019), “지속적인 냉각”(BBC NEWS中文網, 2018), “퇴조가 뚜렷하고 진퇴양난”(華夏經緯網, 2019) 등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김혁은 『춘자의 남경』의 말미에 조선족 청년과 일본 여성 간의 사랑을 설정하였으며, 대만 작가 장

10) 『자유시보』 홈페이지 참조.

영민 역시 『벚꽃』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비행사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했다. 이와 같은 재현은 한중일대 간의 복잡한 역사 관계에 대한 두 작가의 아름다운 상상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아물지 않은 역사적 상처와 여전히 변화하는 정치 현실의 맥락 속에서, 적대적 기억을 넘으려는 사랑은 민족 간 화해에 대한 작가들의 기대가 드러난다. 비록 그러한 기대는 다소 이상주의적이고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 참고문헌 |

- 金革, 2018, 『춘자의 남경』,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張英珉, 2022, 『櫻』, 台北: 九歌出版社.
- 곽진오, 2011, “일제와 조선 교육정책: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0: 260-262.
- 김은자, 2019, “『국자가에 서있는 그녀를 보았네』에 나타난 도시 주변부의 삶과 도시 발견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73: 63.
- 류탕기나, 2021,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중 미디어 프레임 분석.”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0.
- 박정애, 2022,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
- 오성숙, 2018, “제국주의와 성 - 일본인위안부의 표상-.” 『일본언어문화』 42: 232-233.
- 조원기, 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 최낙민, 2017, “현경준의 작품을 통해 본 국경 도시 도문.” 『중국학』 61: 195.
- 최병우, 2018, “김혁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72: 412.
- 하혜주, 2025, “소설과 영화에 재현된 전시기 일본 여성의 욕망 연구.” 『아시아 영화연구』 18: 108-109.
- 宋少鵬, 2016, “媒体中的‘慰安婦’話語.” 『開放時代』: 144.
- 李淑娟, 2023, “台灣‘慰安婦’敘事研究—以「輸送船」、「獵女犯」、「望鄉」、「櫻」為中心.” 『中國學』 83.
- 黃文凱, 2021, “關於她的痛苦—論中國當代文學‘慰安婦’題材小說.” 『南方文壇』: 170-171.
- 도린 매시, 2016,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린다 맥도웰,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서울: 한울.
- 스즈키 유코, 2010,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서울: 나남.
- 아감벤, 2009,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 오카마리, 2024, 『기억 서사』, 서울: 교유서가.
- 우에노 치즈코, 1999,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출판사.
- 조르조 아감벤, 2009,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 _____, 2012, 『아우슈비츠에 남은 자들』, 서울: 새물결.
- 蘇智良 외, 2020, 『日軍慰安婦問題調査与研究1』,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朱德蘭. 2012. 『台湾慰安婦』.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千田夏光. 1996. 『隨軍慰安婦-慶子』. 北京: 群衆出版社.

胡澎. 2005. 『戰時体制下的日本婦女團體: 1931-1945』.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中國社科院台灣研究所. 2019. “2018年台日關係情況回顧.”

http://its.taiwan.ccssn.cn/cgzs/xzlz/dwgx/201905/t20190507_4875169.shtml

[검색일: 2025.6.20.]

BBC NEWS中文网. 2018. “中日關係暖化：台日關係持續審慎「冷卻」.”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46001215> [검색일: 2025.6.20.]

華夏經緯網. 2019. “王鍵：当前台日關係態勢辨析.”

<https://www.huaxia.com/c/2019/02/26/525110.shtml> [검색일: 2025.6.20.]

Abstract

Post-Nationalist Representations and Strategies of
Reconciliation in East Asian ‘Comfort Women’ Narratives
– Focusing on Chun-ja’s Nanjing and Sakura

TAI PEIHAN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East Asia, narratives concerning “comfort women” have long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nationalist and ethnonationalist discourses, producing two notable outcomes. First, within the binary framework of perpetrator (Japan) and victim (occupied territories), Japanese “comfort women,” who occupy a liminal position between perpetration and victimhood, gradually disappeared from public narratives. Second, in emphasizing the victimhood of particular nations or ethnicities, narrativ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comfort women from specific countries, while the similar experiences of women from other regions have been relatively marginalized or overlook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Kim Hyeok’s *Chunja’s Nanjing* (2019), the first full-length novel in Korean-Chinese literature to center on comfort women, and Chang Yingmin’s *Sakura* (2022), the first Taiwanese full-length novel addressing the comfort women issue. The paper examines how these two works depict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highlighting both their innovative approaches and inherent limitations. Both novel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attempt to move beyond ethnocentric narrative frameworks to construct ethical solidarity among women. However, by employing “love” as a symbol of reconciliation, they also risk diluting the structural violen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nherent in the

comfort women issue, reducing its resolution to an emotional or individualized domai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hun-ja's Nanjing and Sakura, this study explores how East Asian literature narrativizes and responds to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while reflecting on the ethical limits and narrative strategies of literary representation.

Key word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Chinese literature, Taiwanese literature, Japanese “comfort women,” postwar reconciliation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2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4일